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조인숙¹ · 류현숙² · 문경님³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¹, 대진대학교 간호학과²,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³

= Abstract =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ook Cho¹ · Hyun Sook Ryu² · Kyung Im Moon³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s University¹

Department of Nursing, Daejin University²

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Kwangju Womens's University³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The subjects were 113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PC+ 18.0.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r=.21$). But parenting 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ress ($r=-.48$). The variables that affecte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ere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These two factors could explain 24.9% of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increase parenting efficacy,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and it can lead healthy life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ey Words: disabilities, parenting, efficacy, stress, social suppor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나 미숙아의 출산 등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수는 증가되고 있어서 2012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약 10만 명으로 조사되어 있다(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EDI], 2014).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EDI, 2014)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출현은 가족체계 내 상당한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이며 장애아동이 성장해 감으로써 정서적, 행

교신저자: 류현숙,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31-539-1871, 팩스번호: 031-539-1870

E-mail: hsryu@daejin.ac.kr

원고접수: 2014년 4월 30일, 원고심사: 2014년 6월 17일

원고채택: 2014년 6월 30일

동적, 사회적 문제가 더 다양해지고 심화되며 만성화된다(Han, Lee & Bang, 2006; Lee, Kim & Lee, 2007).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유발되는 일상생활능력, 학습능력 및 사회생활 적응기술이 저하되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Ayyangar, 2002; Lee AR, 2009). 또한 장애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상 아동의 부모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Shin & Kim, 2010).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 모두가 경험하지만 특히 장애아동을 일차적으로 돌보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비롯되는 양육스트레스로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감, 대인관계의 감소, 신체적 부담, 여가시간의 부족, 교육적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Han et al, 2006; Lee et al, 2007).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하고 궁극적으로 가족 모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Lee et al, 2007; Kim & Lee, 2011).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어머니의 건강문제는 가족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Han, 2007).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Crnic et al, 1983; Hwang et al, 2013). 특히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이나 고립감 등을 감소시키며, 전문가로부터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한다(Han, 2007).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Ryu & Kim, 2000).

한편,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부모가 자신의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등 자녀의 양육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Lee EJ, 2009; Sanders & Woolley, 20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장애아동의 양육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Johnston & Mash, 1989; Lee AR, 2009; Teti & Gelfand, 1991). 장애아동은 학습 능력과 사회생활 적응기술의 발달이 저하되어 있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매우 의존하게 된다(Lee AR, 2009). 그러므로 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행위를 이해함은 물론이고 간호중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Lee AR, 2009)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Lee et al, 2007; Hwang et al, 2013; Lee, 2013)나 사회적 지지(Han, 2007; Lee et al, 2007; Kim & Lee, 2011; Lee, 201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장애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언어치료실을 내원하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에 다중회귀분석시 효과크기의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계산한 결과 본 연구의 적정 표본의 크기는 107명이었다. 실제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을 감안하여 114명을 모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113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을 근거로 하여 Hwang (2002)이 수정, 보완 및 범주화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5문항의 5개 영역으로 경제적 스트레스 5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5문항, 사회생활 스트레스 5문항, 신체적 스트레스 5문항, 교육치료 스트레스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 =.75~.88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9문항, 직업의 기회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정보적 지지 7문항,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의 제공을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 4문항,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7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80~.90이었다.

3)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의 측정도구는 Floyd, Gilliom과 Costigan (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근거로 하여 Ahn과 Park (2002)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 최저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최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Ahn과 Park (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8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6주 동안 G시의 언어치료실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의력결핍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3~13세 아동의 어머니로 하였다. 먼저 언어치료실을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본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3인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목적, 진형절차, 참여의 자발성, 비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애아동은 평균 7.43세로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61.1%였으며, 남아가 71.7%, 출생순위는 첫째가 61.9%였다. 아동의 장애의 심각성은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25.7%였으며, 장애 확진을 받고 1급으로 장애등록을 한 아동은 15.9%, 2급 8.8%, 3급은 11.5%이었다. 아동이 가진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로는 지적장애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언어장애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에

대한 치료는 언어치료 50.5%, 심리치료 17.5% 순이었고, 치료기간은 2년 이하가 58.4%로 평균 3.0년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평균 연령 38.0세로 직업이 있는 경우는 31.9%였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41.6%로 많았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0.1세로 학력은 대졸 이상이 60.2%였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384.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수는 4명이 48.7%로 많았다(Table 1).

2.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 정도

양육스트레스는 5.0점 만점에 2.86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5.0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 지지, 물리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이었다. 양육효능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2.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약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7.744, p=.001$), 장애확진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고($t=2.872, p=.005$), 치료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가 2년 미만군의 경우보다 높았다($F=5.192, p=.007$). 그러나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 수입, 가족 수 등의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는 치료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보다 4년 이상인 경우에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양육효능감은 장애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남자 아동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t=1.984, p=.050$) (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Range
Age of child	<8	69	(61.1)	7.43±3.85	3~13
	8~13	44	(38.9)		
Gender of child	Male	81	(71.7)	1.42±0.73	0~4
	Female	32	(28.3)		
Birth order	1	70	(61.9)		
	2	34	(30.1)	1.42±0.73	0~4
	≥3	9	(8.0)		
Perceived severity of disability	Mild	38	(33.6)	1.42±0.73	0~4
	Moderate	46	(40.7)		
	Severe	29	(25.7)		
Degree of disability	1st grade	18	(15.9)	1.42±0.73	0~4
	2nd grade	10	(8.8)		
	3rd grade	13	(11.5)		
	4th grade	4	(3.6)		
	5th grade	2	(1.8)		
	No registration	66	(58.4)		
Type of disability*	Intellectual	19	(31.7)	1.42±0.73	0~4
	Developmental	15	(25.0)		
	Language	10	(16.7)		
	Brain	6	(10.0)		
Type of Therapy*	Hearing	5	(8.3)	1.42±0.73	0~4
	Retardation	5	(8.3)		
	Language	49	(50.5)		
	Psychotherapy	17	(17.5)		
	Movement	11	(11.4)		
	Behavior	7	(7.2)		
Periods of treatment	Etc.	13	(13.4)	3.00±3.23	0.1~12.0
	<2 year	66	(58.4)		
	2~4 year	21	(18.6)		
	≥4 year	26	(23.0)		
Periods of diagnosis*	<2 year	23	(47.9)	3.00±3.23	0.1~12.0
	2~4 year	12	(25.0)		
	≥4 year	13	(27.1)		
Age of mother	<40	68	(60.2)	38.00±5.31	28~51
	≥40	45	(39.8)		
Mother's occupation	Yes	36	(31.9)	38.00±5.31	28~51
	No	77	(68.1)		
Educational level of mother	High school	38	(33.6)	38.00±5.31	28~51
	College	28	(24.8)		
	Graduate school	47	(41.6)		
Age of father*	<40	49	(46.2)	40.17±5.63	29~52
	≥40	57	(53.8)		
Educational level of father*	High school	25	(23.1)	40.17±5.63	29~52
	College	18	(16.7)		
	Graduate school	65	(60.2)		
Family income per month* (10,000 won)	<400	52	(54.7)	384.83±224.02	40~1500
	≥400	43	(45.3)		
Family members	<3	40	(35.4)	3.84±.87	2~7
	4	55	(48.7)		
	≥5	18	(15.9)		

*missing excluded

가적 지지($r=.235$, $p=.01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4.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487$, $p<.001$)가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경제적 스트레스($r=-.368$, $p=.001$), 심리적 스트레스($r=-.479$, $p<.001$), 사회적 스트레스($r=-.219$, $p=.018$), 신체적 스트레스($r=-.471$, $p<.001$), 교육적 스트레스($r=-.394$, $p<.001$)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17$, $p=.019$)가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정보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지지($r=.205$, $p=.027$), 물리적 지지($r=.209$, $p=.025$), 평

Table 2.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N=113)

Variables	Mean±SD	Range
Parenting stress	2.86±0.677	1.24~4.44
Economical stress	3.13±0.838	1.00~5.00
Psychological stress	3.08±0.848	1.00~4.80
Social stress	2.80±0.915	1.00~5.00
Physical stress	2.38±0.912	1.00~5.00
Educational stress	2.94±0.986	1.00~5.00
Social support	3.45±0.597	2.00~5.00
Informational support	3.06±0.594	1.50~4.38
Emotional support	4.00±0.683	2.29~5.71
Tangible support	3.24±0.676	1.75~5.00
Appraisal support	3.44±0.633	1.40~5.00
Parenting efficacy	2.40±0.317	1.67~3.13

Table 3.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3)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Gender of child	Male	2.81 ±.72	-1.285	3.46 ±.62	.345	2.44 ±.34	1.984
	Female	2.99 ±.53	(.202)	3.42 ±.55	(.731)	2.31 ±.24	(.050)
Perceived severity of disability	Mild	2.58 ±.66	7.744	3.32 ±.66	1.584	2.45 ±.36	1.252
	Moderate	2.86 ±.61	(.001)	3.56 ±.54	(.210)	2.41 ±.27	(.290)
	Severe	3.21 ±.65	(a<c)	3.43 ±.58		2.32 ±.33	
Diagnosis of disability	Yes	3.06 ±.64	2.872	3.35 ±.60	-1.717	2.37 ±.30	-.827
	No	2.70 ±.68	(.005)	3.54 ±.58	(.089)	2.42 ±.33	(.410)
Periods of treatment	<2 year	2.71 ±.68	5.192	3.57 ±.53	2.806	2.41 ±.34	.993
	2~4 year	2.86 ±.61	(.007)	3.40 ±.68	(.065)	2.33 ±.29	(.374)
	≥4 year	3.21 ±.63	(a<c)	3.27 ±.55		2.46 ±.28	
Periods of diagnosis	<2 year	3.18 ±.62	.843	3.32 ±.58	.635	2.27 ±.28	1.533
	2~4 year	2.89 ±.66	(.437)	3.29 ±.66	(.534)	2.47 ±.32	(.227)
	≥4 year	3.14 ±.69		3.52 ±.54		2.37 ±.35	
Mother's occupation	Yes	2.86 ±.70	-.001	3.56 ±.50	1.005	2.33 ±.30	-1.569
	No	2.86 ±.70	(.999)	3.44 ±.61	(.317)	2.44 ±.32	(.120)
Age of mother	<40	2.88 ±.69	.209	3.54 ±.60	1.818	2.37 ±.30	-1.326
	≥40	2.85 ±.67	(.835)	3.33 ±.55	(.072)	2.45 ±.35	(.187)
Age of father	<40	2.80 ±.63	-.785	3.53 ±.58	1.157	2.35 ±.30	-1.654
	≥40	2.90 ±.70	(.434)	3.40 ±.61	(.250)	2.45 ±.33	(.101)
Family income per month (10,000won)	<400	2.87 ±.59	.606	3.43 ±.67	-.960	2.40 ±.33	.765
	≥400	2.79 ±.78	(.546)	3.55 ±.47	(.340)	2.34 ±.26	(.446)
Family members	<3	2.75 ±.51	1.203	3.35 ±.62	.982	2.33 ±.30	2.221
	4	2.96 ±.73	(.304)	3.51 ±.59	(.378)	2.41 ±.33	(.114)
	≥5	2.80 ±.82		3.54 ±.52		2.51 ±.32	

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4).

5.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아동의 성별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 아동의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983-.995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5-1.018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beta = .164$)와 양육스트레스($\beta = -.464$)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F=13.684$, $p<.00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로 총 24.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5).

고 찰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86점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결과(Lee JO, 2008)가 보고되고 있고, 또한 아동의 장애 중증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Lee et al, 2007)도 있어서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순이었고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Lee 등(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적 스트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N=113)

	Parenting efficacy r (p)	Social support r (p)	Informational r (p)	Emotional r (p)	Tangible r (p)	Appraisal r (p)
Parenting efficacy		.217 (.019)	.166 (.074)	.205 (.027)	.209 (.025)	.235 (.011)
Parenting stress	-.487 (<.001)	-.113 (.227)	-.070 (.456)	-.115 (.219)	-.131 (.161)	-.124 (.186)
Economical	-.368 (<.001)	-.034 (.715)	-.008 (.933)	-.026 (.784)	-.064 (.497)	-.062 (.511)
Psychological	-.479 (<.001)	-.041 (.666)	.017 (.860)	-.030 (.751)	-.094 (.314)	-.082 (.384)
Social	-.219 (.018)	-.121 (.194)	-.090 (.337)	-.118 (.206)	-.141 (.130)	-.117 (.210)
Physical	-.471 (<.001)	-.197 (.034)	-.154 (.099)	-.231 (.013)	-.150 (.109)	-.187 (.044)
Educational	-.394 (<.001)	-.038 (.682)	-.026 (.779)	-.031 (.738)	-.063 (.505)	-.030 (.752)

Table 5.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N=113)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p)
Constant	40.565	2.984		13.811	(<.001)		
Social support	.053	.026	.164	2.019	(.046)	.249	13.684
Parenting stress	-.135	.024	-.464	-5.688	(<.001)		(<.001)
Gender of child [†]	.767	.918	.068	.835	(.405)		

[†]Reference category in dummy variable; gender - 'male'

레스가 가장 높아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더불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돌봄 행위를 수행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07; Lee EJ, 2009).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경우, 장애확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치료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 수입, 가족 수 등의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장애가 없는 정상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Hwang et al, 2013).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위험군 아동과 정상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Shin & Kim; 2010)에서 주의력결핍장애군의 어머니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원인은 아동의 기질이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소득만족도나 수입 등의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아동의 성별이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고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본 연구와 일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장애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아울러 아동과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지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장애아동의 양육 및 건강관리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가 장애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Lee KJ, 2008)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5점으로 파악되었다. Han (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다소 높은 정도로 인지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 지지, 물리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는 물론이고 물리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치료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학 전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 et al, 2000)에서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Han (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아의 학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고, Lee (2013)의 연구도 장애아동의 장애정도, 교육수준, 종교, 경제상태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적응을 돕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Trute & Hauch, 1988). 장애아동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남편과 자녀, 양가 부모 및 형제를 포함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Lee KJ, 2008), 장애아동 어머니는 물론 가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망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40점으로 중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Ahn과 Park (2002)의 연구에

서 2~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2.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이 비교적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ee JO (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Yi와 Choi (2010)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없는 결과와 일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장애아동이나 어머니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장애아동의 행동문제와 이로 인해 수반되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낮아지면서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장애아동의 양육에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Lee EJ, 2009; Yi & Choi, 2010)과 일치한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Lee, 2011). 장애아동 어머니는 정상아동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양육효능감도 낮기 때문에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 물리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Yi & Choi, 2010)와 일치

하여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 및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Han, 2007).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지지망은 대부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제공한다면 장애아동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로 24.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성별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와 가족의 특성보다는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나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아동의 행동문제, 신체적 및 심리적 부담감, 사회적 낙인 등 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줄일 수 있고(Lee KJ, 2008; Shin & Kim, 2010) 장애아동의 돌봄이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6주 동안 G시의 언어치료실을 내원하는 장애아동의 어머니 113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을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이다.

참고문헌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Ahn JY, Park SY.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2; 40:53-68
Ayyangar R. Health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 childhood disability.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Clinics of North America 2002;13:793-821
Cho IS, Ryu HS, Kim MW. Social support of mothers with 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00;5:171-185
Coleman PK, Karraker JA.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997;18:47-85
Crnic KA, Greenberg MT, Ragozin AS, Robinson NM, Basham RB.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3;54:209-217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3 Disability Statistics. [serial Online] 2014 January [cited 2014 April 3] Available from: URL: <http://stat.m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bbsSeq=12&nttSeq=20620&menuId=46>
Floyd FJ, Gilliom LA, Costigan CL.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1998;69:1461-1479
Han YR. Perceived social support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7;21:206-216
Han YR, Lee MH, Bang MR. Health education needs of mothers who are caring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6;12:44-56
Hwang HS, Kim HS, Yoo IY, Shin HS.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3; 19:39-48
Hwang KJ.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of mothers with multiple-handicapped children. Graduate School of Hallym University, 2002
Johnston C, Mash EJ.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Clinical Psychology 1989;18:167-175
Kim IO, Lee WR. A study on bringing-up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011;27:101-120
Lee AR. A structural model of caring behavior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673-682
Lee D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3;22:161-188
Lee EJ. A study on the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competence of th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fluency disord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2009;8:203-218
Lee JH, Kim HY, Lee JH. A study on maternal stress

- in rear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ternal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7;13:5-12
- Lee JO.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13:403-428
- Lee KJ.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degree of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developmental delay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8;13:43-61
- Park J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85
- Sanders MR, Woolley ML.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005;31:65-73
- Shin HS, Kim JM.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maternal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53-461
- Teti OM, Gelfand DM.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1991;62:918-929
- Trute B, Hauch C. Building on family strength: A study of families with positive adjustment to the birth of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88;14:185-193
- Yang BM.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adaptation, and parenting efficacy perceived by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008;24:257-278
- Yi JS, Choi YH.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010;13:19-32